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5주일 】

인도 1부 : 김재홍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믿고 앞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이 혼돈의 시간이 다 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부터 어떤 방식의 삶을 살지에 관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때론 어떤 선택 속에서 주님의 동행을 느끼기도 했고 또 어떤 선택 속에서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44. 시편 100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342.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 ▲ 성경봉독 삼상 24:16~22 · 1부: 인도자/2부: 박영신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함 께

찬 양	I. 물 위를 걷는 자	마중물찬양대
	II.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청파찬양대
말 씬	삶의 분기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선 우리 앞에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르거나 나누지 마십시오. 각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사랑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마음을 등진 채 우리의 생각만 앞세운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선 나뉘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 내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택할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속회 (쉽)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언어 수행자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듣고 또 하고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말의 양과 질도 매우 다양하지요. 대개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말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엄격한 관상(觀相) 수도회인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은 오직 침묵과 기도의 삶에 몰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은 수화(手話)로 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는 만큼 말로써 죄를 지을 확률도 줄어들겠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대하는 가족, 친구, 이웃끼리도 서로 편하게 여겨서인지 주고받는 말 때문에 깊은 오해와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면에 말을 잘못 해서 좀처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병고에 시달리며 누워 있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와 이별로 괴로워하는 이에게,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는 이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아 건네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합당한 말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막상 표현을 하자면 생각이 잘 안 나고 말이 궁해 답답해지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설피게 위로하려다 오히려 상처를 주기보다는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하는 말도 종종 듣지만 이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뜨개질을 배우듯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좋은 말을 배우는 데도 많은 연구와 노력과 연습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평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공부하고, 남의 말을 열심히 듣고, 좋은 책을 통해 좋은 말을 배우며 실제로 잘 활용하려 애쓴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언어생활이 더 아름답고 깊이 있게 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속한 말, 너무 피상적이고 충동적이고 겉도는 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부터 맑고 굽고 선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향기로우려면 우리의 삶 또한 향기로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끝없이 노력하는 언어의 수행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꽃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결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 이해인,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샘터) 중에서

간장

하상만

콩자반을 다 건져 먹은 반찬통을/ 꺼낸다 반찬통에는 아직
간장이 남아 있다/ 외로울 때 간장을 먹으면 견딜 만하다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내가 일으키려 할 때
할머니는 간장을 물에 풀어오라고 하였다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혼자 먹던 것은 간장이었었다는 것을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그릇의 고봉밥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부엌에서 할머니는 외로웠다고 했다

물에 풀어진 간장은 뱃속을/ 좀 따뜻하게 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주었다
할머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달라고 한 음식은/ 바로 간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
수년째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던 그 방
한구석엔 검은 얼룩을 가진/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내가 간장을 가지러 간 사이 할머니는/ 영혼을 놓아버렸다
물에 떨어진 간장 한 방울이/ 물속으로 아스라이 번져가듯
집안은 잠시 검은 빛깔로 변했다

비로소 나는 할머니의 영혼이/ 간장 빛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자이므로 간장이 입에 맞다
혼자 식사를 해야 했으므로/ 간장만 남은 반찬통을 꺼내놓았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혜린 국지연 김경혜 김기철 김동희 전현선 김명숙 김명하 오형일 김영호 김영희
 김예준 김윤옥 김재홍 최희영 김정규 이종옥 김정길 최숙화 김중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필순 김현정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나희덕 노신후 문금석 문복순 박기원
 이미영 박미연 박상규 안정숙 박준민 최광희 박해숙 방종미 백원선 사혜리 서원금
 소광섭 김숙희 손규현 오보영 송남필 신문희 안미순 안성호 유지은 윤수연 윤영주
 이광섭 김수연 이광재 이범석 류정옥 이수자 이우상 이계월 이우엘 이인용 오송경
 이재삼 전정현 이한림 김명희^a 이형숙 안길상 임 정 정성훈 정연희 정종삼 정현모
 조두희 조미선 조병주 조석현 손영미 조치형 장호정 주은경 지윤미 최옥분 최인건
 최종원 최현선 최형균 강경화 최형민 하현일 한양미 이진영^b 홍경화 홍윤선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¹

감사헌금

강승일 계병순 권미숙 김 극 김일재 김태정 김효은 나영란 박영옥 박유경 김성우
 박재영 이현정 방문성 박혜경 서미정 서병원 박성희 양인숙 윤성일 은종인 이고임
 이유일 김미희 이현죽 임채진 이영희 장봉수 한양미 이진영 한인철 조윤숙 무명³

생일감사헌금

문금석 신영신 이미혜 이왕준 송상경

녹색꿈헌금

김명하 오형일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문복순 윤미경 윤수진 이고임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4:0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속회 : 오늘 속회 모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니다.
2. 위생 생활 :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다.(자주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그러나 과도하게 염려하는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은 삼갑시다.
3. 신앙실천 : 우한 지역의 사람들과 치료를 위해 격리되어 있는 이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월 등록 새 교우>

구혜린 김다연 김선희 김영덕 라민주 박성준 방종미 배용석 서정표 윤선진 정운환 조명자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막 7:31-37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이재훈	추현영	이재훈
2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최은미	
	2부 헌금위원	곽권희 황현성			
식당봉사	오늘	박홍재 김태정 김영희 안미순 오연훈 서정임 박상규 조두희			
	다음주	한양미 이준립 고숙이 정은선 김희숙 추현영 안성호 박재영			
설거지봉사	3여성교회 (오늘)	4여성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남성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